

완도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우수 시설' 선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좋은 평가 받아

완도군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평가는 2018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수처리 기술진단 완료시설 전국 112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

관리 현황 등 3개 분야, 15개 항목을 1차로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우수시설 3개소를 선정한다.

완도군은 완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기술 진단 결과에 의한 시설개선 적극 추진, 최종 방류수 수질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완도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은 청정바다이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수질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노후설비 교체 등 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약 체결

중심상가 상인회와 협력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무안읍 중심상가 상인회 이사장 및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무안군과 중심상가 상인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 지역경제의 안정 보장,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 조성 등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산 군수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심상가 상인회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소통을 강화함에 따라 무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말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9월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무안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해남 친환경 쌀, 서울 학교급식 공급

인수영농·땅끝항토친환경영농, 공급업체 선정



해남 친환경 쌀이 서울시 도봉구 학생들의 밥상에 오른다.

해남군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또 인수영농과 땅끝항토친환경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도봉구 초·중·고에 연간 200톤의 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전국에서 2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20%), 생산시설 등 현지 심사(50%), 친환경 쌀 공급계획 발표 및 확보도가 참여한 평가단 60여명의 식미평가(30%) 등 엄격한 평가 항목을 적용했으며,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 4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인수영농조합법인과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해남관내 1150ha 면적에서 친환경 재배를 통한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 쌀 전문 도정 시설을 갖추는 등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조합법인이다.

한편 해남군은 서울과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 2000여 톤의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마케팅으로 해남 명품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김광일 기자

강진군, 휴가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

36개소 대상 내·외부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

강진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외 피서지 등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 실시 관리대상은 36개소로, 내·외부시설 및 위생상태 일제점검 결과 3개소가 관리 미흡으로 조사되어 즉시 시정 조치가 나왔다.

군은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안내표시판 분구 점검, 장애인 화장실 정비 등 미비점은 바로 시정하고 고장 등 파손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군은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지 외 피서지 등 이용객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특별 관리대상

으로 구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카메라 근접을 위해 열 감지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여성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중화장실 사전 점검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 주민 및 휴가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중화장실 이용객들도 깨끗한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김광일 기자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2분기 전년 비 13% 증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영농효율 향상 큰 도움

영암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2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본 임대사업소에서 상반기에 4,011대를 임대하였고, 3,376명의 농업인이 5,636일을 사용했다.

영농실적을 들여다보면 읍·면별로 삼호읍, 시종면, 신북면, 영암읍, 도포면 순으로 임대대수가 많았으며 2분기 주요 임대기종으로 관리기, 파종기, 승용예초기, 탈방기 순으로 임대되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35종 721여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 중이며 올해 2월에 개소한 농기계임대복합사업소(시종면, 470-6658)의 역할로 북

부지역민의 신규사용 증가와 농기계 임대 분산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임대농기계의 대체 구입과 신기종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할 예정"이며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짧은 만큼 사용하는 농업인들도 내 기계처럼 소중하게 운전하고 사용 후 깨끗하게 반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멸종위기 풍란 등 5532종 서식

신안군은 천사섬 신안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파악하기 위해 1967년부터 2019년까지 척추동물 등 12개 분류군의 기존 연구자료 250편을 분석한 결과 총 5532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풍란, 흰조리수리 등 7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동안 산재해 있던 생물상 자료를 섬과 종별로 정리했다. 이러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각 섬의 생물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 자생하는 생물은 동물, 식물, 세균 등 26개 분류군 5만827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주요 생물종인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관속식물, 해조류 등 12개 분류군(4만130종)에 대한 기존 조사를 종합한 결과 군에서 5532종(15.3%)이 확인됐다. 특

히 조류는 406종이 기록돼 우리나라 전체 조류 527종 중 77%를 차지했고, 관속식물은 2557종으로 41.3%였다.

주요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뽕소라 등 76종, 한반도 고유종은 참달팽이 등 118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23종, 천연기념물 36종이 관찰됐다. 또한 종의 분포에 있어서도 멸종위기종인 풍란은 영산도 등 5개 섬, 수달은 107개 섬에서 관찰됐다.

이번 문헌자료 분석은 신안 섬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다. 문헌조사가 분석된 섬은 총 643개이며, 약 380개의 섬에 대한 생물상 정보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각 섬별로 조사된 문헌수가 1~87회로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 전체 생물상의 26개 분류군 중, 12개 분류군에 대한 정보만 정리했을 뿐이다. 따라서 조사, 분석이 확대되면 군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도한국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개실·운영

진도군 등 전남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진도한국병원(원장 양민준)이 지난 7월초부터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실·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관내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었지만 좀 더 정밀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면 외지의 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진도한국병원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최신 유방촬영기를 신규 도입하고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등 6대암의 정밀 검진이 가능하다.

진도=조성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